



光云電子高總同門會

제13호

2013년 1월 1일(토) <http://www.kw00.net>
139-875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24 예지관

전화(02)919-0522 Fax(0505)919-0522
회장:류희근 사무국장:김귀중

‘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’



개교80주년을 목전에 두고...

▣ 한강의 발원지는, 강원도 태백산 대덕산 금대봉 자락의 검룡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.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루 2천톤에 가깝다는 것이다. 그 물은 물길을 따라 정선을 거쳐 평창, 단양, 충주, 양평을 지나 서울의 한강에 도착하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발원지의 물이 도랑을 만들었고, 도랑

이 여럿 모여 내를 이루었으며, 내가 모여 강을 이루어 바다와 합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물흐름과 비유한다. ‘류수와 같다’란 표현을 자주 인용한다. 물은 쉬 없이 계속해서 흐른다. 언제,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흐른다. 시간 역시 그렇다.

쉬는 경우가 없다. 고장 난 시계와는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. 개교 78주년을 보내고 80주년이 눈앞에 와 있다. 머지않아 1세기도 맞이할 모교의 위상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. 교가에서와 같이 ‘하늘 높이 솟아오른 전자탑 위에...’ 많은 발전을 올려 놓았다.

묵묵히 일해 온 동문들의 땀과 노고가 쌓여 있는 것이다. 이런 노고를 헛되이 흘려 보내선 안 된다. 현장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‘만남의 장’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이다. 이젠 혼자만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이 온 것이다.

현장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광운인만의 힘을 발휘해 보자. 그 예로 합자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. 광운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회사를 말이다. 서두르지 말고, 차근차근 준비하면서...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 총동문회와 모교도 빛낼 수 있도록 말이다.

신년회 1월15일(화) 세종문화회관에서 (관련기사8면에)